

## 『한정록(閒情錄)』의 성격과 필기(筆記)로서의 세설체(世說體)\*

김영연\*\*

- I. 서론
- II. 세설체(世說體)의 전변(轉變)과 『한정록』
- III. 『한정록』의 「은둔(隱遁)」 편의 세설체 전유
- IV. 필기(筆記)로서의 세설체와 『한정록』
- V. 결론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기존에 『한정록』의 속성을 규정하려는 시도가 회피되어 온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한정록』의 기본 속성은 『세설신어』 이래의 세설체 전통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정록』의 토대가 된 세 문헌 가운데 핵심은 『세설신어』이며, 단순 계수에 근거해 인용 빈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소창정기』를 주요 출전으로 지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소창정기』는 본질적으로 명대 세설체의 하나로, 그 자체가 『세설신어』의 변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정록』은 이러한 세설체의 분류에서 파생된 한 갈래로, 하량준이나 왕세정과 같은 명대 강남 문인들이 주도한 세설체 부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한정록』은 명대 세설체가 지닌 반성리학적 경향이나 물질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아울러 『한정록』은 「치농」과 같이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7046271)

이 논문은 아모레퍼시픽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서울대학교 강사.

농법에 관한 실용적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독서 기법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할 때 본고에서는 『세설신어』가 속한 필기(筆記) 전통의 일부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핵심어: 한정록, 세설체, 허균, 소창청기, 왕세정, 필기

## 1. 서론

허균(許筠)의 『한정록(閒情錄)』은 어떤 책이고, 이 한정록의 집성 작업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떤 방면에 주목해야 할 것인가? 본고에서는 이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한정록』 연구서는 그 연구 질문에 따라 크게 두 방면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한정록』의 속성이 무엇인가에 답하고자 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한정록』이 어떤 책들을 출전으로 삼았는가에 답하려 한 연구이다.

전자의 계통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된다. 도가적 신비주의를 철저히 배제한 채 현세에 초점을 두었다고 보는 견해<sup>1)</sup>가 있는가 하면, 도가 사상이 강하게 서려 있다고 보는 견해<sup>2)</sup>가 대비되는 가운데, 『한정록』의 한 장(章)을 이루는 「치농(治農)」을 크게 강조하여 『한정록』을 사실상 농서로서 취급하는 견해<sup>3)</sup>가 있다. 이들 주장은 서로 양립되기 어려운 것임에도 상호 논박되지 않은 채 공존하여 왔다.

반면 『한정록』의 출전이 된 책들에 관심을 갖는 후자의 연구 경향, 즉 서지학적 관심사에서 비롯된 연구 경향은 2천년대 이후 『한정록』 연구의 주류를 형성했다. 『한정록』의 인용 문헌 중 오종선(吳從先)의 『소창청기(小窗淸紀)』로부터 재인용된 구절이 수량상 많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래,<sup>4)</sup> 『한정

1) 김석하, 『韓國文學의樂園思想研究』, 日新社, 1973, 168~169면.

2) 박영호, 「『閒情錄』研究」, 『韓國道敎와 道家思想』 5, 한국도교사상연구회, 아세아문화사, 1991, 252, 254면; 허경진, 『허균 평전』, 돌베개, 2022, 262면.

3) 김용섭, 『閒情錄의 農業論』, 『東方學志』 52,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 1986.

4) 한영규, 「한적(閑適)의 선망과 『한정록(閒情錄)』」, 『문헌과해석』 19호, 문헌과해석사, 2002,

록』과 『소창청기』의 관계를 여러 각도에서 고증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그리하여 『한정록』에서 인용한 문헌 중 『소창청기』의 비중이 가장 많다는 점,<sup>5)</sup> 『한정록』에 그 출전이 이탁오의 저작 『이씨분서』라 되어 있던 대목도 실은 『소창청기』에서 재인용한 구절이라는 점도 이어서 밝혀졌다.<sup>6)</sup> 또한 『한정록』 권17에 실린 원굉도의 『병사(瓶史)』 말미에 덧붙인 ‘화안(花案)’ 조(條)가, 실은 원굉도의 저작이 아니라 오종선의 『소창자기(小窗自紀)』에 수록된 오종선의 글이라는 발견<sup>7)</sup>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성과 중 하나이다. 이후 허균뿐 아니라 신희도 『소창청기』 내용을 토대로 『야언(野言)』을 집록한 점이 밝혀지면서 『한정록』 연구에서 『소창청기』는 중요한 문헌으로 취급되었고<sup>8)</sup> 근자에는 『한정록』 연구에 있어서 『소창청기』야 말로 핵심 문헌이자, 허균과 오종선의 문학 간에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주장까지도 제기되고 있다.<sup>9)</sup>

이상과 같은 문헌 연구는 『한정록』에 표시된 출전이 실제 출전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지적한 점에서 『한정록』의 성립 과정을 실상대로 이해하는 데 공헌하였다. 『한정록』에 출전으로 표시되어 있는 서적명은 편찬자가 직접 보았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타 문헌에 실린 내용을 재인용하면서 해당 내용이 실린 원래의 문헌을 출전으로 표시한 경우가 많았던 점이 밝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전근대 시기 한자 문화권의 인용 관행에서는 재인용을 했더라도, 재인용했음을 밝히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는 지

---

171~173년.

- 5) 김은술, 『『閒情錄』의 引用文獻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9, 47면.
- 6) 부유섭, 『허균이 뽑은 중국 시(1) - 『당절선산(唐絶選刪)』, 『문헌과해석』 27, 문헌과해석사, 2004, 246, 264면.
- 7) 김은술, 위의 논문, 30, 51면. 정확히는 ‘화안’은 오종선의 창작이 아니라, 하선량(何仙郎)이 지은 글에 오종선이 내용을 추가한 글이다. 해당 논문에서는 『소창청기』 및 『소창자기』 내용을 거론하는 데 있어 『四庫全書存目叢書』에 수록된 판본을 기준으로 논의하였다. 해당 논문에서는 『소창청기』 등의 출전을 권253~254라 했으나 실제 출전은 『四庫全書存目叢書』(子部) 권252~253이다. 오종선의 ‘화안’은 『四庫全書存目叢書』(子部) 영인본 권252의 679면에 수록되어 있다.
- 8) 그 연장선상에서 허균이 본 것은 만력 연간의 19자본 『소창청기』이고 신희가 본 것은 18자본 『소창청기』라는 요지의 고증이 알려지기도 했다. 김은정, 『『小窓清紀』異本과 17세기 초반 朝鮮에서의 수용 양상』, 『韓國漢文學研究』 47, 한국한문학회, 2011 참조.
- 9) 송신가, 『허균 『閒情錄』의 연구 -明代 『小窓清記』 청언소품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참조.

적<sup>10)</sup>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정록』이 특정한 문헌에 대폭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일 방향으로만 관심사가 편향되고 있는 점은 그것대로 문제이다. 문헌학적 사실 관계를 고증하는 작업은 그 결론의 진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논쟁의 여지도 적다. 달리 말해 그간의 『한정록』 연구는 논자마다 달리 볼 수 있는 논점을 발굴하여 논의를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는 방향보다는, 상대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적은 발견들을 추가하는 데 골몰하는 사이 20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논쟁을 회피하는 연구 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정록』이 과연 어떤 책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답하거나 상이한 답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유력한가를 검토하는 작업은 방치되어 왔다.

그 결과 『한정록』의 속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논쟁도 합의도 없이, 저마다 그 속성을 자의적으로 적당히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이 관례가 되어 온 실정이다. 가령 후지모토 유키오(藤本幸夫)는 일본 소재 조선본 문헌 목록을 집성하는 과정에서 『한정록』을 사서(史書)에 수록하는가 하면,<sup>11)</sup> 다른 논자들은 『한정록』을 유서(類書)라 하거나,<sup>12)</sup> 필기(筆記)라 한 것<sup>13)</sup>이 그 예이다. 이들 중 『한정록』을 자신이 귀속시킨 장르에 넣어야 하는 이유를 본격적으로 제시한 경우는 거의 없다.<sup>14)</sup> 그리하여 『한정록』은 연구자들에게 익숙한 문헌이되, 그 성격은 논쟁되지 않은 채 남겨지게 되었다.

10) 박상영, 『“인제지”의 조선후기 의사학적 위상과 의의-미키 사카에의 ‘제인용[孫引]’ 지적과 ‘학술가치’ 평가에 대한 제검토』, 『韓國實學研究』 25, 한국실학학회, 2013, 558~559면.

11)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 史部, 東國大學校出版部, 2018, 584~585면.

12) 김은슬, 『“閒情錄” 現傳本에 나타난 문헌의 인용방식과 그 체계』, 『書誌學報』 33, 한국서지학회, 2009, 57면.

13) 김정숙, 『명대 강남 吳中の博雅風 문화와 조선 문단의 교섭』, 『中國散文研究集刊』 16, 한국중국산문학회, 2024, 85면. 김정숙은 같은 논문 82면에서 『한정록』을 “대표적 ‘세설체’ 저작물”이라고도 언급하고, 85면에서는 『한정록』을 필기류 집록 방식의 하나로 취급한다. 본고는 이 관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나, 그 근거에 대한 논의는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4) 예외적으로 김은슬은 『한정록』을 유서로 취급하면서 중국인 학자 리우예치우(劉葉秋)가 제시한 ‘전문적 분야에 대한 특수한 유서’ 개념에 『한정록』이 부합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리우예치우의 유서 개념은 일반 유서이든 특수 유서이든 유서를 시문(詩文) 창작의 참고서로 보는 반면, 허균의 『한정록』은 창작용 참고서가 아니라, 여러 서적 중 편자의 기호에 부합하는 부분을 감상 목적으로 발췌했다는 점에서 『한정록』을 유서로 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이미 제기된 바 있다. (김영연, 『버클리대 소장 필사본 『한정록』의 특징과 가치』, 『동서인문학』 63,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2, 118면)

물론 상기 논자들은 『한정록』의 성격 자체를 탐구하는 연구를 기획한 것이 아니기에, 『한정록』의 속성을 적실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이들 작업의 의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러 논자들이 『한정록』의 성격을 제각기 규정하는 가운데, 마치 『한정록』의 성격은 이미 충분히 규정된 것처럼 치부된 점은 문제이다. 앞서 거론했듯 『한정록』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이 책이 유가적인지 도가적인지를 논하거나 농서로서의 성격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한정록』에는 제3편의 ‘한적(閒適)’ 제2칙과 같이 주돈이나 정씨 형제의 일화와 같이 성리학자에 관한 일화도 있는가 하면, 제1편 ‘은둔(隱遁)’ 서두에 나오듯 허유나 소부, 노자와 같이 흔히 도가 계통에 귀속되는 인물들의 일화도 있다. 제16편에서는 한 장을 전부 할애하여 농법과 가축 사육 및 양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점은 알려진 대로이다. 그 외에도 『한정록』에는 유가나 도가 어느 한쪽으로 귀속시키기 어려운 여러 가지 고사(古事)나 어록(語錄)들이 다채롭게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한정록』의 성격은 유가적이거나 도가적이라 하는 어떤 특정 학파에 간단히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 탐구되어야 할 질문은 어느 한 범주로 귀속되기 어려운 잡다한 형태의 언명들이 어떤 원칙 위에서 하나의 표제 아래 묶일 수 있었던가 하는 점이다.

최근에는 이른바 ‘박아풍(博雅風)’ 또는 ‘박학(博學)’이라는 표현을 통해 『한정록』의 성격을 서술한 경우도 있다.<sup>15)</sup> 다양한 범주에 관심을 갖는 지적 경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짐작되는 이 표현은, 동시대 『지봉유설』과 같은 저술이나, 한 세기 후의 황윤석의 『이재난고(頤齋亂藁)』 같은 일기류 저술에도 두루 쓸 수 있을뿐더러, 무엇보다 ‘박’이라는 말의 외연이 극히 불분명하기에, 『한정록』이 가진 구체적 특성을 포착하는 용어로서는 설명력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결국 『한정록』의 성격을 알고자 한다면, 『한정록』의 잡다한 내용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하나의 일관된 전체를 이루고 있는지, 잡다한 출전으로부터 도출되어 발췌된 분량이나 내용도 제각각인 발췌문 집성 작업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규명하는 데에서 탐구를 시작해 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한정록』이 어느 책을 거쳐서 재인용된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아는 데서는 만

15) 김정숙, 앞의 논문, 58~59, 82면.

족할 수 없다. 『한정록』이라는 문헌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한정록』이 특정 문헌을 재인용했다는 현상을 확인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그 책의 근간을 이루는 구성 원리와 근본적인 전거가 되는 문헌과의 관련을 파악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한정록』이 17세기 지성사의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허균이 문인으로서 지니는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한정록』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점하는지에 대한 평가도 온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정록』 전체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책이 무엇인가를 재검토하고, 이어서 『한정록』 후반부에 수록된, 일견 잡다해 보이는 주제까지를 포괄하는 장(章)들의 의미를 살펴보려 한다. 이를 위해 『한정록』의 근본적인 전거가 『세설신어』 이래의 세설체 저작에 있다는 점과, 명대 강남 지역 문인들이 세설체 저작을 재발견하고 혁신한 점과 관련하여 『한정록』을 보아야만, 비로소 『한정록』의 비전형적이고 잡다한 내용들이 편찬자 허균의 의체에 비추어 일정한 문제에 대한 답으로 존재하게 된 서적이라는 점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논구해 보겠다.<sup>16)</sup>

## II. 세설체(世說體)의 전변(轉變)과 『한정록』

『한정록』의 근간이 되는 서적으로 허균 자신이 지적한 저작이 『서일전

16) 左江, 『許筠《閑情彙》与“世說體”小説』, 『南京大學學報(哲學·人文科學·社會科學版)』 47-3, 南京大學, 2010. 이 논문에서도 허균의 『한정록』을 “세설체 소설”의 영향을 받은 저작으로 다루면서, 『세설신어』 외에 『하씨어림』이나 『소창청기』 등의 문헌을 모두 광의의 세설체로 취급하였다. 이 논의에서 세설체를 중국 ‘소설’의 원류로 취급하는 시각은 투친 이래 중국 학계에서 『세설신어』를 ‘志人小説’의 비조로 보는 흐름을 따랐다. 후술할 바와 같이 필자는 세설체 저작을 소설의 원류로 취급하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으며, 1) 주제별 배열 방식, 2) 문인 일화 중심의 서술, 3) 간결한 문체와 짧은 분량, 4) 흥미성과 사실성이 어우러진 이야기라는 특징으로 세설체의 속성을 집약하는 시각(해당 논문 107면)에 대해 유보적이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세설체의 속성을 규정하는 것은 『세설신어』와 같은 위진 시기 저작에 대해서는 적절할 수 있으나, 명대의 이질적인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출현한 세설체 저작의 특징을 포착하기는 어려우며, 명대 세설체 저작과의 관련 속에서 등장하였던 『한정록』의 속성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설명력만을 갖는다. 일례로 명대의 『하씨어림』 등에 빈출하는 것처럼, 인물의 한 마디 말만을 수록하여 사실상 어록과 별 차이가 없게 되는 짧은 칙의 경우, 일화 중심이거나 흥미성과 사실성이 체고되어있다고 보기 어렵다.

『棲逸傳』, 『와유록(臥遊錄)』, 『옥호빙(玉壺水)』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다.<sup>17)</sup> 허균이 1610년 무렵에 썼을 것으로 생각되는 『한정록』 초기 본 서문이나, 1618년에 지어진 범례 모두 이 세 책이 『한정록』 작성의 기초가 되었음을 거듭 거론하고 있다. 특히 현전본 『한정록』 16문(門) 체제의 도입부가 되는 『한정록』 범례에서도 『한정록』의 골자로 우선 이상의 3종 서적을 지목한 다음에 ‘그 밖의 여러 책’ 내용을 추가 증보하여 거의 완비했다고 말하는 점은,<sup>18)</sup> 16문 체제의 현전본 『한정록』에서도 편자가 자기 편저의 핵심을 이룬다고 보았던 책은 위의 세 책이라는 것을 확인해 준다. 현전하는 허균의 글에서는 오종선이라는 작가나 『소창청기』라는 책에 대한 편자 자신의 자각적 주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연구자들이 사후적으로 『한정록』을 계수한 결과로 수량상 인용 분량이 많다고 짐케된 『소창청기』라는 텍스트로 넘어가기에 앞서, 일단 편자 자신이 지목한 세 책이 어떤 공통 인자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서부터 『한정록』 성격 파악이 시작되어야 할 일인 것이다.

이들 3종의 책은 각각 다음을 가리킨다.<sup>19)</sup> 우선 원문에서 “劉何棲逸傳”이라 한 것은 유의경(劉義慶, 403~444)의 『세설신어(世說新語)』와 하량준(何良俊, 1506~1573)의 『하씨어림(何氏語林)』의 한 편으로 설정되어 있는 『서일(棲逸)』을 가리킨다.<sup>20)</sup> 『와유록(臥遊錄)』이란 원문에서 “呂伯恭臥遊錄(伯恭은 여조겸의 字-인용자)”이라 칭한 것인데, 이 책은 송대(宋代) 여조겸(呂祖謙, 1137~1181)의 저작이라기보다 16세기 초에 등장한 서적으로

17) 허균, 『성소부부고』 권5, 『閒情錄序』, “近以疾移告杜門, 偶閱劉何棲逸傳, 呂伯恭臥遊錄, 都玄敬玉壺水, 其寓情蕭散, 犁然有當於心. 遂合四家所筭, 間附以所觀記, 彙爲一書, 又取古人詩賦雜文詠及於閑逸者爲後集, 爲編凡十, 題曰閒情錄, 自以澄省焉.”; 『한정록』 「범례」, “余在庚戌(1610년-인용자 年)夏, 抱病謝事杜門爲客, 無以消長日. 巾衍中適披得數帙, 乃朱蘭鳴太史所贈栖逸傳, 玉壺水, 臥遊錄三種, 反覆披覽, 仍取三書, 爲四門類彙, 名曰閒情錄. 一曰隱逸, 二曰閒適, 三曰退休, 四曰清事.”

18) 『한정록』 「범례」, “余嘗恨家乏史籍所載甚簡略, 切欲添入遺事, 勒爲全書, 爲計久矣. 倅德未暇, 甲寅乙卯兩年, 因事再赴帝都, 斥家貨購得書籍幾四千餘卷, 就其中事涉閒情者, 以浮帖, 帖其提頭處, 以需殺青. (중략) 今年春羅謫, 席藁戰悸之中, 無以破窮愁, 遂取諸書, 考浮帖寫出, 更分爲十六門, 而爲卷亦十六. 噫! 閒情錄到此, 庶爲完備, 而僕之歸思, 益著於是矣.”

19) 이하에 서술한 내용은 기존 연구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김영연, 『허균(許筠) 산문의 한정(閒情)과 선취(仙趣)』,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23, 95~96면.

20) 애초에 『서일』로 되어 있는 편명에 ‘傳’을 덧붙인 것은 그 내용이 완적이나 혜강을 비롯한 위진 시기 명사들의 행적에 관한 일화를 수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보는 견해가 있다.<sup>21)</sup> 『와유록』의 실제 편자가 누구이건, 현전 『설부(說郛)』 소재 『와유록』 역시 총 45칙의 글 중, 『세설신어』에서 발췌한 것이 21칙으로 가장 많다. 『옥호빙』은 도목(都穆, 1458~1525)이 엮은 총 72칙의 짧은 글 모음집인데, 한대(漢代)부터 명초(明初)까지의 여러 전적 중에서 글귀나 고사를 발췌한 것이다. 이 역시 채록한 출처는 『세설신어』가 16칙으로 가장 많다. 요컨대 허균이 『한정록』의 근간으로 지목한 세 종의 책은 그 자체로 『세설신어』의 일부이거나, 『세설신어』를 가장 비중 있게 채록한 문장 선집인 것이다.<sup>22)</sup>

그렇다면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세설신어』와 그 속서(續書)에서 계승한 세설체의 골자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중국 문학사에서 일컫는 세설체란 『세설신어』가 나온 5세기 이래 거듭 편찬된 속서들, 즉 『세설신어』의 구성 방식을 모방하여 지어진 책에서 공유하고 있는 체제를 가리킨다.<sup>23)</sup> 『대당신어(大唐新語)』나 『속세설(續世說)』, 명대의 『하씨어림』 등과 같은 책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 책의 체제에서 가장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형태상의 특징은 책의 각 장이 두 글자의 편명(篇名)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편명 아래 상호 간에는 관련이 없되 편명이 말하는 주제에는 관련이 있는 짧은 분량의 인물 고사들이 모여져 있는 점이다.<sup>24)</sup>

세설체 저작들의 원조가 되는 『세설신어』는 이른바 ‘청담’을 행한 관료 지식인들의 일화를 단형 서사에 포착해 놓은 형태로 되어 있다.<sup>25)</sup> 이 『세

21) 『四庫全書總目提要』 권131, “是書前有嘉定九年(1530년-인용자, 이하 동일)王深源序, 後有嘉靖壬午(1522년)顧元慶跋. 凡四十五則, 前二十一則全錄劉義慶『世說新語』, 次十八則全錄蘇軾雜著及『陶潛集』, 惟後二則不知爲誰語. 其言參差不倫, 了無取義, 祖謙必不如是之陋. 此本出陳繼儒『善秘笈』中, 殆明人依託也.” 비록 청담에 간행된 『와유록』 서문에는 이 책이 명인(明人)의 의작(擬作)이 아니라, 실제로 여조검이 썼다고 주장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출판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주장이라는 점을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 1870년(同治 9년)에 나온 호봉단(胡鳳丹, 1828~1889)의 ≪금화총서(金華叢書)≫본 『와유록』 서문이 그 사례이다. “不以類別, 不以世次, 而尋繹一過, 胸次灑然. … 優而遊之, 使自得之, 會心人當不遠耳. 然則此一卷其成公(呂祖謙)之雜錄歟? 抑明人之依託歟? 是固可以不辨.” (『陔遊錄』, 中華書局, 1985, 10면)

22)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정록』이 재인용한 글귀의 모음집이라는 것은 『한정록』 편찬의 초기 시점부터 분명했던 일이지, 『소창정기』의 발견을 통해 세삼 새롭게 거론되었어야 할 일은 아니다.

23) 김정숙, 『명대중엽 세설체 형성』, 『中國語文學誌』 53, 중국어문학회, 2015, 209면.

24) 김장환, 『세설신어 속서연구-세설신어보』, 『중국어문학논집』 16, 중국어문학연구회, 2001, 80~81면. 고사의 분량은 대개 10자에서 100자 사이, 길어도 3~400자 정도이다.

25) 중국 학계, 가령 寧稼雨나 楊義와 같은 논자들은 최근까지도 루쉰이 『중국소설사』에서 제

설신어』에서 취하고 있는 서술 방식상의 특징 중 하나는 인물 평가가 전면 에 드러나 있는 점이다. 두 명 이상의 인물을 나란히 보여줌으로써 두 인물 간의 우열을 나란히 보여준다.<sup>26)</sup> 논자에 따라서는 인물 품평과 귀족 사회 내에서 명성을 얻기 위해 겨루었던 경쟁이야말로 『세설신어』의 핵심이라고 본다.<sup>27)</sup> 『세설신어』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가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일은 본고의 주안점이 아니므로 일단 체쳐두더라도, 인평이 『세설신어』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듯 인물에 대한 평가가 위진 시기 저작 중 하나인 『세설신어』에서 주요 관심사 중 하나가 된 점은, 이 시기 귀족 사회 내부에서 추천식 관리 선발 제도와 맞물려 인물 품평이 귀족들의 주된 관심사였던 현상과 맞물려 있다.

반면 명대의 세설체는 그 태동 배경에 있어서 위진 시기의 원조 『세설신어』와 구분되는 두 가지 중요한 차이를 지닌다. 우선 추천제가 아닌 과거 시험을 통해 관리를 등용하는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 다음으로 그러한 과거 제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강남 지역에서 태동했다는 점

---

기한 견해를 따라 『세설신어』를 소설의 원류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논의로 다음을 참조. 루원, 루원전집번역위원회(조관희) 역, 『루원전집 11 중국소설사략』. 그린비, 2015, 154~180면; 寧稼雨, 『中國志人小說史』, 遼寧人民出版社, 1991, 58~71면; 楊義, 『漢魏六朝『世說體』小說의 流變』, 『中國古典小說史論』, 人民出版社, 1998, 136~148면.) 반면 서구 학자들은 『세설신어』를 소설의 원류로 취급하는 견해를 거의 수용하지 않는다. 『세설신어』를 소설로 보는 데 대한 명시적 반론으로는 Nanxiu Qian, *Spirit and Self in Medieval China: The Shih-shuo hsin-yu and Its Legacy*,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1, pp.2~3. Qian 같은 논자는 『세설신어』를 소설과는 구분되는 서사 장르로 취급하면서도, 전근대 시기 세설체 저작의 편찬자들이 세설체 전통을 역사물로 인식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논의는 Qian, *Ibid.*, pp.200~201.

26) 이러한 측면은 특히 9장 품조(品藻)에 실린 일화들에 뚜렷하다.

27) 이 시기의 구품중정제(九品中正制)가 명청대의 과거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추천제라는 데 있다. 마크 루이스와 같은 논자는 『세설신어』를 관통하는 주제가 인물 평가 및 귀족 사회 내부의 상호 경쟁에 있다고 본다. (마크 루이스, 조성우 역, 『하버드 중국사 남북조』, 너머북스, 2016, 100~106면) 또한 책 첸의 경우 『세설신어』의 핵심을 ‘인재를 알아보는 능력(知人)’과 ‘명성[知名]’으로 보고, 인재를 알아보는 능력은 단지 정치적 차원에서 인재 발굴을 위한 수단에 국한되지 않고, 귀족들 간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즉 『세설신어』는 개인들의 명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구성하는 저작이었다는 것이 첸의 주장이다. (Jack W. Chen, “Knowing Men Being Known: Gossip and Social Networks in the *Shishuo Xinyu*” in *Idle Talk: Gossip and Anecdote in Traditional Chin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4, pp.61~62.)

이다.

전자와 관련해서 명대의 세설체는 이 시기 과거 시험 과목의 이념적 기초가 되는 송대(宋代) 정주학(程朱學)과 안티 테제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sup>28)</sup> 그 근거로 지목되는 것이 문정명이나 왕세정처럼 세설체 저작에 서문을 썼거나 세설체 작품집을 남긴 인사들이 모두 세설체 저작을 송대 성리학자들의 관점에 대립하는 견지에서 거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실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예문은 문정명이 하량준의 『하씨어림』에 붙인 서문의 일부이고, 두 번째 예문은 왕세정이 자신의 『세설신어보』에 붙인 서문의 일부이다.

① 혹자는 이 책이 자질구레한 것만 따져서 취할 것이 없다거나, 글에 굴곡이 있고 치우쳐 있으며 화려한 표현들로 문장을 치장했지, 도덕과 성명(性命)에 대해서는 밝힌 바가 없다고 한다. (중략)

송나라 말엽에 학자들이 성명의 학설에 이끌려, 깊이 들어앉아 침묵하고 단정히 앉아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을 가리켜, 이것으로 충분히 참된 본성을 함양하고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보존한 것을 살펴보면 비판할 것이 많다. 그렇다면 비록 스승에게서 전수받은 연원이 있어도 본 바에 미혹되어 단순한 데 치우쳐 날로 얕고 빈약한 데로 나아가 자신을 한계 지은 것이다. 그리하여 좋은 말을 빌어 자신이 부족한 바를 감추고 벽만 바라보는 데 만족하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였으니, 용렬한 지경에 떨어졌을 뿐이다. 아! ‘완물상지’라는 한 마디 말이 끝내 후학들의 깊은 병통이 되었으니 군자는 일찍이 이 점을 안타깝게 여겼다.<sup>29)</sup>

② 나는 평소에 늘 이렇게 생각했다. 송나라 때 경학 선생들은 매번 청담이 난을 초래했다고 비난했지만, 진(晉)·송(宋)이 강좌(江左·남송)를 가리킴, 인용자)

28) 김장환, 위의 논문, 84면(그 근거로 陳洪·黃菊仲 주(1999), 續世說新語(天津: 天津人民出版社), 「前言」 2면의 언급을 들고 있는데, 필자는 해당 문헌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김장환은 이 글에서 『세설신어』를 현학 시대의 산물로, 『하씨어림』을 심학 시대의 산물로 대비한다; Qian, Ibid., pp.250~256.

29) 문정명, 『甫田集』 권17, 「語林原序」, “或者以爲摭裂委瑣, 無所取裁, 散轍偏駁, 獨能發義飾詞, 於道德性命, 無所發明. (중략) 宋之末季, 學者牽於性命之說, 深中厚默, 端居無爲, 謂足以涵養性眞, 變化氣質, 而考厥所存, 多可議者. 是雖師授淵源, 惑於所見, 亦惟簡便, 日趨偷薄自畫, 假美言以護所不足, 甘於面墻, 而不自知, 其墮於庸劣焉爾. 嗚呼! 舊物喪志之一言, 遂爲後學之深痼, 君子蓋嘗惜之.”

의 상황에 대해 마찬가지로 줄은 몰랐다. [송대 유학자들이] 적의 군사를 축출하고서 유생 노릇 할 수 있었다면, [위진 시기의 명사들도] 적의 군사를 축출하고서 청담을 할 수도 있는 일 아니었으랴. 그렇다면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sup>30)</sup>

첫 번째 예문은 문징명이 1551년에 쓴 『하씨어림』 서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문징명은 이 글에서 『하씨어림』이 도덕이나 성명(性命) 같은 성리학의 주요 의제와 무관하다는 일각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문징명이 보기에는 송대 성리학자들이야말로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자신들의 시야를 좁히고도 자각하지 못한 부류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완물상지’라는 말은 크게 잘못된 명제이다. 문징명이 볼 때 성리학자들은 다양한 대상을 넓고 깊게 파악하는 일을 ‘완물상지’라는 말로 부당하게 폄훼해 온 것이다. 위 인용문에 드러난 문징명의 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대상에 대한 적극적 흥미를 지향하는 ‘완물’이야말로 면벽수도에 비해서 발전적인 태도일 수 있다. 하량준의 『하씨어림』은 다행히 송대 유학자들의 편견에 이끌리지 않고 기꺼이 다양한 대상에 깊은 관심을 갖고 문장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여 일정한 성취를 이루어 냈다는 것이 문징명의 결론이다.<sup>31)</sup>

두 번째 예문인 왕세정의 글에서도 역시 송나라 유학자들이 청담을 비난한 데 대한 반론이 확인된다. 왕세정이 볼 때 청담 때문에 외세의 침략을 막지 못했다고 비판한 송유(宋儒)들 역시 금나라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송나라 유학자들의 청담 비판은 애초에 자격도 없고 적실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왕세정 역시 위진 청담의 정수를 담은 『세설신어』를 상찬하는 데 있어, 청담이 나라를 망쳤다는 비판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으며, 그런 비판에 맞서 『세설신어』와 자신의 후속작인 『세설신어보』를 옹호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문징명과 왕세정 모두 세설체 저작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송대 유학자들을 명시적으로 비판하였음이 확인된다.<sup>32)</sup>

30) 왕세정, 『兪州四部稿』 권71, 『世說新語補序』, “余居恒謂, 宋時經儒先生, 每譏謔清言致亂, 而不知晉宋之於江左一也. 驅介胄而經生之乎, 則毋乃驅介胄而清言也. 其又奚擇焉?”

31) 문징명, 위의 글, “元朗貫綜深博, 文詞粹精, 見諸論撰, 偉麗淵宏, 足自名世. 此書特其緒餘耳. 輔談式藝, 要亦不可以無傳也.”

32) 선행 연구에 따르면, 17~18세기에 걸쳐 조선에서의 『세설신어』 유행은 『전등신화』 등과는 달리 서울 지역의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그쳤다. (노경희, 『현종실록자본 『세설신어』

명대 세설체 중 가장 널리 알려진 『하씨어림』과 『세설신어보』의 편찬자인 하량준과 왕세정, 그리고 앞서 거론한 문징명은 주지하듯 모두 강남 일대에서 주로 활동한 인물이다.<sup>33)</sup> 명대 세설체 저작이 많이 출현하고 널리 읽히게 된 배경에는 관직에 진출하지 못한 사대부들이 호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두루 발견된다.<sup>34)</sup> 하지만 『세설신어』류 저작들이 관직에 진출하지 못한 사대부들의 취향에 부응했다고 하기에는, 그중 가장 영향력이 컸던 『세설신어보』<sup>35)</sup>의 작자 왕세정 역시 세설체 저작 만들기에 적극 가담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강남 문인들의 세설체 저작 애호는, 관료가 되는 데 실패한 사대부 문인들의 좌절감 해소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다. 이들은 명초부터 중국 내 여타 지역에 비해 과거 응시에서 독보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15세기 초에 명 조정에서는 남부 출신 사대부의 과거 합격자 독식을 막기 위해 과거 합격자 수에 지역 할당제를 두게 되지만 그마저 16세기에는 사문화되고, 합격자 중 상위권을 남부 출신이 독식하는 현상이 이어진 것은 종전에도 지

보」간행과 流傳의 문화사적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52집, 한국한문학회, 2013, 524~526면) 더구나 『세설신어보』에 관심을 가졌던 조선 내 소수의 문인들 사이에서도, 문징명이나 왕세정이 『세설신어』를 매개로 하여 지냈던 宋儒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지각되지 못하였거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거나, 혹은 공공연히 긍정할 수는 없었던 태도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허균 역시 『送李懶翁還枳山序』(권4)나, 『學論』(권10) 등의 글에서 주희를 위시한 송대 성리학자들의 학설에 대한 명시적 긍정을 드러내고 있다. 성리학에 대한 허균의 공개적 긍정 및 주변 관료 문인과의 입장 차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영연, 『논변류 산문을 통해 본 허균의 정치 담론: 『學論』, 『政論』, 『遺才論』, 『豪民論』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70, 동양한문학회, 2025, 97~110면.

33) 특히 왕세정의 『세설신어보』가 등장한 이후로는 기존의 『세설신어』 원문본이 거의 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명대 『세설신어보』의 간행 상황과 17세기 초 『세설신어보』의 조선 유입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노경희, 『『세설신어보』의 조선과 에도 문단의 출판과 향유층 비교』, 『한국문화』 72,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5, 73~76면.

34) Chaoying Fang, “Ho Liang Jun” in *Dictionary of Ming Biography 1368-1644. 2 vols.* Edited by Goodrich, L. Carrington and Fang Chao-ying,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6, p.516; 유희준·민관동, 《皇明世說新語》의 국내 출판과 수용 연구, 『중국소설논총』 40, 한국중국소설학회, 2013, 12면; 김정숙, 앞의 논문, 77면.

35) 왕세정의 『세설신어보』가 명대에 나온 여러 세설체 저작 중 가장 과급력이 컸음을 보여주는 증언으로 다음 구절이 흔히 거론된다. 曹徵庸이 鄭仲夔의 세설체 저작 『清言』에 붙인 서문에서 ‘그 전에는 세설신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적었는데 왕세정이 『세설신어보』를 낸 후에야 비로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 내용이다. 曹徵庸 『清言序』, “獨怪夫嘉隆以前, 學者知有所謂『世說』者絕少, 自王元美『世說補』出, 而始知有所謂『世說』, 然已非晉宋之『世說』矣。” 『四庫全書存目叢書』 子部 244책, 323.

적된 바와 같다.<sup>36)</sup>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강남 지역 문인들은 관료 되기에 실패한 좌절감의 해소처가 필요했다기보다, 관료가 될 수 있는가 여부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지닌 집단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처럼 강남 문인들이 중국 내에서 자립적 위상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할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한 요인 중 하나는 이 지역의 경제적 번영일 것이다. 강남 지역의 산업 발전과 그로 인한 사회 변화는 주지의 사실이라 재론을 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강남의 풍요와 관련하여 명대 강남의 세설체 저작이 지닌 두 번째 특징이 도출된다. 즉 사물을 매개로 인물의 자아를 표현하는 차원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이다.<sup>37)</sup> 가령 『하씨어림』 역시 이 국면이 드러난다. 『하씨어림』은 유의경의 『세설신어』 체계를 전체적으로 따르는 가운데, 「언지(言志)」와 「박식(博識)」 두 편이 추가된 것이 특징인데, 그중 「박식」 편은 그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기이한 동물이나 희귀 골동품 등 이국적인 것을 알아보는 문인들의 감식력을 예찬하는 내용이다. 「언지」 편은 더욱 흥미로운데, 「언지」 편의 서문에서는 ‘언지’라는 어휘와 관련하여 쉽게 떠올릴 수 있을 일화, 즉 『논어』에서 공자가 증점(曾點)의 포부를 인정한 일화가 재해석되고 있어서이다.

내가 옛사람을 두루 살펴보니, 성품이 물고기와 새를 좋아하면 이운과 여상처럼 창고를 관리하고, 입으로 풀과 고기를 즐기면 소부와 허유처럼 가축을 길렀다. 조용함과 민첩함이 사람마다 현저히 달라, 각기 자신의 취향을 따랐다. 그러나 많은 말이 있어 혼란스러울 때는 성인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공자의 문하에서 찾아본다면, 자로는 용감하고, 자하는 논변에 능했다. 그들의 마음이 백성과 사직에 있고, 뜻이 예약에 있다면 사업을 일으켜 공을 세우고,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공자는 오직 “안회에게 재물이 많았다면 내가 그를 위해 재상[宰]이 되고 싶다”고 했다. 이에 나는 공자와 더불어 탄식하였다. 그런데 공자가 유독 증점을 인정한 것은 어째서였을까? 공자의 이 말에서 바로 뜻의 고하와 득실의 개요를 알 수 있다.<sup>38)</sup>

36) 관련 논의(檀上寬, Benjamin Elman)를 요약한 것으로는 김영연, 『許筠 산문과 명대 문학의 관련성 재고』, 『한국한문학회』 90, 한국한문학회, 2024, 114~115면.

37) 이하 내용은 다음의 논의를 정리한 것이다. Qian, Ibid., pp.262~273.

38) 하량준, 『何氏語林』, 『言志』, “余歷觀古人, 性樂魚鳥, 則以伊呂爲管庫, 口悅芻豢, 則以巢許爲卒養. 靜躁懸殊, 亦各從其好也. 然衆言淆亂, 當取則於聖人. 求之孔門, 則由之勇, 賜之辯. 其或

『하씨어림』에는 각 편마다 해당 편의 취지를 약속한 서문이 붙어 있는데, 위 인용문은 「언지」 편 서문의 말미이다. 여기서 공자가 안회를 가리켜, 자신이 그의 재상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는 고사는 『사기』 「공자세가(孔子世家)」에서 나온 것이다.<sup>39)</sup> 미국의 세설체 연구자 Nanxiu Qian은 하량준이 ‘공자가 안회의 재상이 되고 싶다’고 말한 이 구절에 대한 그간의 지배적인 해석, 가령 왕숙(王肅, 195~256)이 제기한 것처럼 ‘공자는 여기서 안회가 자신과 뜻을 같이 한다’고 말한 것이고 따라서 ‘재상[宰]’이란 단어는 비유적 표현에 그친다고 보았던 것과 달리, 문자 그대로 재물의 가치를 긍정한 것으로 해석한다.<sup>40)</sup>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언지」 편에는 사대부들이 재정적 측면에서 자족적 삶을 구가하는 일화를 다수 수록했다는 점, 『사우재총설』의 「구지(求志)」 편에서 범려(范蠡)의 치산이재에 관련된 행적을 상찬하여 일관적 입장을 견지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sup>41)</sup>

강남 문인들이 경제적 풍요를 바탕으로 문인으로서의 아취를 전시할 수 있는 여러 기물에 두루 관심을 가졌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세설체의 전변과 관련하여 이 현상을 되짚어 보면, 이 시기 문인들이 단지 잡다한 사물에 두루 관심을 가진 것 이상의 문화사적 의미를 간취할 수 있다. 가령 Qian이 지적하는 것처럼, 『하씨어림』 「언지(言志)」 편의 다음 일화는, 문인 개인의 정체성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있어 원조 『세설신어』와는 일정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호단(胡旦)이 몇 척짜리 크기의 벼루를 만들고, 벼루 한쪽에 이렇게 새겼다. “송나라 호단이 이 ‘한춘추(漢春秋)’ 벼루를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죽은 후에 벼루를 함께 묻어달라고 유언했다.<sup>42)</sup>

벼루를 직접 만들었을 뿐 아니라, 죽은 다음까지도 벼루와 함께 묻히고

---

心存民社，志在禮樂，非不可以興建事功，並垂竹素。而夫子獨曰：回也多財，願爲之宰。又吾與之歎獨於曾點何耶。此則志之高下得失概可見矣。”

39) 『史記』 권47, 「孔子世家」, “顏回曰：‘夫子之道至大，故天下莫能容。(중략) 不容何病，不容然後見君子！孔子欣然而笑曰：‘有是哉顏氏之子！使爾多財，吾爲爾宰。’”

40) Qian, Ibid., pp.262~263.

41) Qian, Ibid., p.263, 437 (미주 60~61).

42) 『何氏語林』 권10, 「言志」, “胡旦作大硯，可數尺，鑿其旁曰，‘宋胡旦作漢春秋硯，遺命埋冢中。’”

싶어 한 호단의 태도는 송대 성리학자들이 경계한 ‘완물상지’의 태도와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호단의 저작 『한춘추(漢春秋)』와 같은 이름을 자신이 만든 벼루에도 붙였다는 것은, 실상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일화다. 하지만 이상의 일화는 그 진위 여부와 무관히, 하나의 독립된 일화로서 묘사 대상의 지적 능력과 포부, 미적 취향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Qian의 관찰에 따르면 이처럼 문인이 사물을 창조하고 사용하거나 감상함으로써 사물에 자신의 특성을 붙여넣고, 사물이 문인의 확장된 자아로 기능하는 과정이 부각되는 경우는 명대 세설체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는다.<sup>43)</sup>

요컨대 명대의 세설체 작품들은 유의경의 『세설신어』와 형식적 특징을 공유하는 가운데, 반정주학적 입장을 천명했다는 점과, 사물을 매개로 하여 문인의 자의식을 형상화한 두 가지 차원이 추가되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 III. 『한정록』 「은둔(隱遁)」 편의 세설체 전유

지면 관계상 여기서는 『한정록』의 초기 구상 단계에서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한정록』 서두의 첫 번째 장인 「은둔」 편의 배치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한정록』의 세설체 활용이 어떤 식으로 관철 또는 변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겠다. 저본으로는 『한정록』의 여러 이본 중에서 내용이 비교적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통행본, 즉 국립중앙도서관본과 규장각 관물헌 소장본을 활용하되 일부 타 이본을 대조하였다.<sup>44)</sup>

43) Qian, Ibid., pp.270~271.

44) 『한정록』 관련 28종 이본을 조사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한정록』 이본에는 크게 두 계통이 있고, 종전까지 대부분의 연구에 활용되고 있던 통행본(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규장각 관물헌본, 규장각 홍문관본)과 연세대본 등은 대체로 비슷한 계열의 이본이며, 버클리대학 소장본을 비롯해 국내 소장된 몇몇 초본(抄本)들이 별개의 계통을 이루고 있다(김영연, 『버클리대 소장 필사본 『한정록』의 특징과 가치』, 『동서인문학』 63,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2, 135면 참조). 여기서는 내용이 비교적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다고 보이는 통행본을 저본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일부 버클리대학 소장본을 대조하였다. 최근 새로 공개된 ‘문천본’이 여러 이본 중 어떤 위상을 지니는지는 추후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검토

먼저 『은둔』 편을 살펴보면, 『한정록』 범례에 언급된 것처럼, 여타 편에 비해 분량이 제일 많다.<sup>45)</sup> 내용인즉 고대부터 명대(明代)에 이르는 은사(隱士) 관련 일화를 나열한 것인데, 수록된 인물 중에는 소부나 허유처럼 유명한 인물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인물들도 상당수 수록되어 있다. ‘은사’라는 말 그대로 이름이 전해지지 않아서 ‘어부’나 ‘산인’처럼 호명한 경우도 있으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은사를 목격하고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세간에 전했다는 목격자가 유명한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 목격자의 생존 연대를 통해 목격자가 지목한 은사의 생존 연대를 역으로 추정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

세설체 작품에서 인물을 묘사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은둔』 편에서도 중심이 되는 인물 1인만을 대상으로 서술한 사례는 거의 없고, 거의 반드시 중심인물을 제시한 다음, 그 중심인물과 비교가 되거나 대화 상대가 되는 보조 인물을 함께 묘사함으로써 중심인물의 위상을 가능하게 하는 보조적인 인물이 등장한다. 가령 중심인물의 은둔의 의미를 보여 주기 위해 보조 인물로 등장하는 왕이나 지방관이 등용을 제의하지만 중심 인물이 이를 거절한다든가, 이미 훌륭한 은사인 줄 알았던 중심인물에게 숨은 명예욕이 있었음을 일깨워 주는 보조 인물을 제시하는 식의 서사 패턴이 반복된다. 따라서 『은둔』 편에서는 중심인물에 못지 않게 보조 인물의 역할이 중요하고, 84개 칙 중에서 중심인물과 대비되거나 중심인물을 응시하는 보조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칙은 서너 편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적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그 출전이 꼭 『세설신어』나 『하씨어림』 같은 세설체 저작이 아닌 경우에도 관찰되고 있다. 그 양상을 요약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대상에서 일단은 제외하였다. ‘문천본’ 한정록에 대해서는, 허경진, 『허균전집 3: 한정록』, 보고사, 2022, 11~14면 참조.

본고에서 저본으로 활용한 것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과 관물현본인데, 관물현본 『한정록』은 마땅히 구분해야 할 칙을 하나의 문장인 것처럼 연결해 놓은 경우가 더러 있어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과 대교해서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완본(完本)으로 존재하는 『한정록』 이본들은 『성소부부고』이본에 부록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성소부부고』이본 연구에서 지적된 관물현본의 장단점(임미정,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이본(異本) 연구(研究)』, 『語文論集』 82, 중앙어문학회, 2020, 236면)이 관물현본 부록 『한정록』에서도 관찰되는 만큼, 해당 연구에서 선본으로 주목한 연세대본 『성소부부고』에 부록으로 붙어 있는 『한정록』 역시 추가 검토가 필요하리라 본다.

45) 『한정록』, 『凡例』, “故此集首以隱逸之士, 而所收獨多於他事, 爲隱逸第一.”

## 『은둔』 편 개관

\*음영: 버클리대 소장본 『한정록』을 비롯해 특정한 이본 계열에는 수록되지 않은 칩.

\*출전은 『何氏語林』으로 표기된 사례에 국한하여 검토하였음.

(출전이 『세설신어』로 표기된 사례는 『은둔』 편에는 없음)

\*예외적으로, 기존 연구와 관련된 『소창청기』 및 일부 기타 문헌을 표기하였음(42, 56, 61칙).<sup>46)</sup>

칙	중심인물 호칭	본명(생물년) ·미상이면 빈칸	왕조 (시기)	보조 인물	출전
1	소부		(고대)	허유	표기: 『高士傳』(○) + 『遵生八牋』 권19
2	허유		(고대)	소부	
3	상용		(고대)	노자	
4	노래자		楚(春秋)	아내	표기: 『高士傳』(○) + 『遵生八牋』 권19
5	검루선생		齊(戰國)	魯 恭公 등	
6	피구공		吳(春秋)	연릉계자	
7	영계기			공자	
8	하계		衛(春秋)	공자	
9	장저, 걸닉		(春秋)	공자	
10	하조장인			공자, 자로	
11	육통	(접어)	楚	아내	
12	상산 사호	동원공 외	前漢	漢 高祖	
13	동방만천	동방삭	前漢	漢 武帝	
14	정자진	鄭樸	前漢 成帝	揚雄 (기원전 53~18)	
15	엄군평	嚴遵	前漢	李强, 王鳳, 양웅 등	
16	장원경	蔣詡	前漢	羊仲, 求仲	『何氏語林』 권20 『棲逸』
17	정차도			鄧敬	『何氏語林』 권20 『棲逸』
18	왕군공		後漢	당시 사람들	표기: 『世說新語補』 (실: 『何氏語林』 권20 『棲逸』)
19	왕증자	王良	後漢	벗	표기: 『事文類聚』 (실: 『何氏語林』 권20 『棲逸』)

46) 김은슬, 『『閒情錄』의 引用文獻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9, 97면.

20	양백란	梁鴻	後漢	肅宗, 아내 德曜 등	
21	장중율		後漢	德曜	표기: 『何氏語林』 (차이 있음) (실: 高士傳 中)
22	한백휴	韓康	後漢	무명의 여인 (약 구매자)	표기: 『後漢書』 권83 『逸民列傳』 (실: 『何氏語林』 권20 『棲逸』)
23	상자평	向長	後漢	王邑	
24	대효위	臺佟	後漢	魏郡刺史	
25	서유자	徐穉(97~168)	後漢	郭林宗	
26	곽임종	郭泰(128~169)	後漢	徐穉	
27	원하보	袁閔	後漢	范滂(137~169)	
28	申屠蟠		後漢	范滂(137~169)	
29	관유안	管寧	魏	華歆(157~231)	
30	방공	龐德公	後漢	劉表(142~208)	
31	사마덕조	司馬徽 (173~208)	後漢	劉表(142~208)	
32	방사원	龐統(178~213)	龐統	사마휘	
33	손공화	孫登(209~241)	吳(三國)	阮籍, 嵇康	
34	손공화	孫登(209~241)	吳(三國)	阮籍(210~263)	
35	미상		魏(三國)	阮籍(210~263)	
36	하중어	夏統	西晉	賈充(217~282)	
37	둥위연	董京	西晉	孫楚(?~282)	
38	張薦		東晉	王羲之 (303~361)	『何氏語林』 권20 『棲逸』
39	도처정	陶淡	東晉		『何氏語林』 권20 『棲逸』
40	劉子驥		東晉	桓沖(328~384)	『何氏語林』 권20 『棲逸』
41	곽원유	郭瑀	前涼 (301~376)	張天錫(346-406)	『何氏語林』 권20 『棲逸』
42	색위조	索襲	前涼	陰澹	표기: 『高士傳』 (×) (실: 『何氏語林』 권20 『棲逸』) *“『소장청기』 청사 422 하 (조금 다름)”

					(偉祖 표기 없음)
43	대중약	戴顓(377~441)	南朝 宋 (420~479)		『何氏語林』 권20 「棲逸」
44	저원거	褚伯玉(394~479)	東晉		『何氏語林』 권20 「棲逸」
45	유영예	劉蚪	南齊	竟陵王 蕭子良 (460~494)	『何氏語林』 권20 「棲逸」
46	고장유	顧黯	南齊	顧景怡	『何氏語林』 권20 「棲逸」
47	종경미	宗測	南齊		『何氏語林』 권20 「棲逸」
48	종경미	宗測	南齊	예장왕 소의	『何氏語林』 권20 「棲逸」
49	종경미	宗測	南齊	魚復候	『何氏語林』 권20 「棲逸」
50	손백예		南齊	王亮, 范雲	『何氏語林』 권20 「棲逸」
51	도홍경	(456~536)	梁	高祖, 武帝	
52	명승소		南齊	太祖	『何氏語林』 권20 「棲逸」
53	장영서			關康之 (415~477)	『何氏語林』 권20 「棲逸」
54	하자유	何求	南齊	宋 明帝	『何氏語林』 권20 「棲逸」
55	유언도	유우	梁	阮孝緒, 劉士光	
56	송영애	宋織	梁	楊宣, 馬岷	표기: 『『준생팔전』 *“『소창청기』 청어 310 상a” (이름이 宋織으로 표기)
57	왕중엄	王通(582~616)	隋	양소(544~606)	
58	주도추		隋~唐		
59	공극			孔公	
60	사마자미	사마승정(643~735)	唐	潘師正 睿宗(r.719~712)	
61	전유암		唐	高宗(r.649~683)	“『소창청기』 청어 314 하b” (상당히 다름)

62	오정절	吳筠 (715~778)	唐	현종(r.712~756)	
63	장지화	張龜齡 (730~810)	唐		
64	육노망	陸龜蒙 (?~881)	唐	무명인	
65	진도남	陳搏	宋	송기(998~1061)	
66	충명일	种放	宋	진종(3대)	
67	위야	(960~1020)	宋	진종(3대)	
68	관사복		宋	인종(4대)	
69	위야		宋宋	진종(3대)	
70	임포		宋	진종(3대)	
71	곽연경		宋	錢惟演 (977~1034)	
72	道人 2인		宋	蘇軾 (1037~1101)	
73	송강 어부		宋(철종 연간)	潘裕	
74	양적현 두생			黎陽尉	
75	순창산인		宋 靖康	張浚 (1097~1164)	
76	소운경		南宋	張浚 (1097~1164)	
77	여회지		元末明初	東閣 詩客 다수	
78	백옥섬		南宋 嘉定 (1208~1224)	宋 寧宗	
79	호장유	(1230~1314)	南宋	趙孟頫 (1254~1322)	
80	焦某		明	명 태조	
81	왕빈		明	명 성조 姚廣孝 (1335~1418)	
82	형양		明	吳寬 (1435~1504)	
83	진해옹		明	吳與弼 (1391~1469) 陳獻章 (1428~1500)	

84	노인 2인		明	王世懋 (1536~1588)	
----	-------	--	---	--------------------	--

이상의 검토를 통해 도출되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인물에 관한 고사가 시대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버클리대 소장본을 비롯한 일부 이본 계통에서 발견되지 않는 음영 표시한 항목을 포함하든 제외하든 이 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sup>47)</sup> 77칙의 여휘지(呂徽之) 정도가 시대순에서 어긋나는 드문 예외이다. 이와 같은 배치 방식은, 은둔자들의 계보를 전설상의 고대에서 16세기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구성함으로써 하나의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있다. 이 점은 중국의 역대 세설체 저작의 편찬자들이 자신의 편찬 작업을 역사 서술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점<sup>48)</sup>과 공명한다.

둘째, 『한정록』상에 표기된 출전이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sup>49)</sup> 가령 제1칙의 소부 고사는 출전이 『고사전(高士傳)』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도 『고사전』에 해당 일화가 등장한다. 하지만 동일한 문장으로 구성된 일화는 『준생팔전(遵生八牋)』에도 나온다. 3칙의 상용 고사와 56칙의 송영애 고사에서도 출전 표기가 『준생팔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전을 표시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준생팔전』의 존재를 몰랐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47) 버클리대 소장본을 비롯한 별개 계통의 이본에서는 이상의 은사 관련 일화 말미에다, 통행본에서는 2편 「고일」에 수록해 놓은 5개 일화를 수록하고 「도화원기」 전문(全文)을 수록해 놓았다. 하지만 「은둔」 편의 대부분을 인물 고사로 채워 놓은 점은 통행본과 다르지 않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김영연, 앞의 논문, 130면.

48) Qian, *Ibid.*, pp.201~202. 「은둔」 편의 인물 배치가 통시적 순서를 따른다고 해도 그것은 정사(正史)의 서술과는 장르를 달리하는 것이다. Qian에 의하면, 세설체 작품의 편찬자들이 세설체를 역사서의 일종으로 보면서도, 세설체는 정사와는 달리 인물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허용하던 점에서, ‘실제 그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능하게 하는 특별한 종류의 역사서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에 대한 증거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왕세정의 『세설신어보』 여러 판본 중 1585년 간본 말미에 붙은 왕태형(王泰亨)의 글 중 다음 구절이다. “왕세정의 세설신어보를 읽으면 혜강과 완적의 깨끗한 풍모를 마주치는 것 같고, 유담과 허순이 논증하는 현학 담론을 듣는 것 같고, 왕도(王導)와 사안(謝安)의 주옥같은 모습을 보는 듯하다. (使人讀之, 突然面接嵇阮之清掃, 耳聆劉許之玄理, 目觸王謝之琳琅, 忘其爲吾以後事矣.” (王泰亨, 王泰亨, 『題世說新語補後』, 『世說新語補』)

49) 애초에 그 출전 표기를 누가 했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존본 『한정록』 중에 허균의 친필본이라 할 것은 남아 있지 않고, 허균 자신도 출전 표기에 대해 남긴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감안하면, 널리 알려진 일화가 명대의 여러 책에 두루 실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특정 문헌을 허균이 본 원출전으로 확정하는 일은 그 근거를 찾기 극히 어려운 작업이다.

셋째, 위의 사항과 관련해서, 허균이 『한정록』을 만들 때 『소창청기』를 중심 자료로 활용했다는 기존의 설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소창청기』를 중시한 선행 연구에서는 『한정록』에 표기된 출전과는 달리 『소창청기』가 진정한 출전이라면서 인용 문헌 분포표를 제시한 적이 있다.<sup>50)</sup> 그중 『은둔』 편에는 『소창청기』 중 세 군데(42, 56, 61칙)에서 일화를 옮긴 사례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만약 『한정록』에 옮긴 일화의 출전이 『소창청기』라면, 『소창청기』의 내용을 생략할 수는 있어도, 해당 문헌에 없는 정보를 지어낼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추론해야 한다. 그런데 61칙의 경우, 두 문헌을 대조해 보면 다음 밑줄 친 부분과 같이 『한정록』에는 『소창청기』에 없는 서술을 포함하고 있다.

『한정록』: 田游巖, 永徽時, 補太學生, 罷歸入太白山, 母及妻, 皆有方外志. 後入箕山, 居許由塚傍, 自號由東隣, 頻召不出. 高宗幸嵩山, 親至其門, 游巖野服出拜, 儀止謹樸. 帝謂曰, 先生比佳否. 答曰, 臣所謂泉石膏肓, 烟霞癡疾者.

『소창청기』<sup>51)</sup>: 田游巖, 頻召不出. 高宗幸嵩山, 親至其門, 游巖野服出拜, 儀止謹樸. 帝問, 先生比佳否. 答曰, 臣所謂泉石膏肓, 烟霞癡疾者.

편의상 가장 차이가 극명한 사례를 들었지만, 나머지 사례도 마찬가지다. 선행연구에서는 『소창청기』에서 발췌했다고 본 42칙이나 56칙 역시 『소창청기』에도 해당 일화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나, 42칙은 『하씨어림』에 동일한 일화가 나오고, 56칙은 陳耀文의 『天中記』에도 더 긴 분량의 일화가 나온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창청기』는 『한정록』과 일정한 내용을 공유하는 책이기는 하나, 양 책에 유사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과, 한쪽이 다른 한쪽을 옮겼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한정록』에서 『소창청기』에만 나오는 내용을 전제한 대목이 있다고 해서, 『소창청기』 외의 다른 문

50) 김은슬, 「『閒情錄』의 引用文獻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9, 97면.

51) 吳從先, 『小窗清紀』(『四庫全書存目叢書』(子部 253책)) 314면, 하b.

헌에도 등장하는 대목들에 대해서도 모두 『소창청기』로부터 옮겼다고 보는 시각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한정록』에 실린 일화 중 널리 알려져 있던 일화들은 어느 한 문헌에만 독점적으로 실린 것이 아니라, 여러 문헌에 두루 나타나기 때문에, 특정 문헌을 『한정록』의 진정한 출처로 지목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 IV. 필기(筆記)로서의 세설체와 『한정록』

이상에서는 『한정록』의 첫 장(章)인 「은둔」 편이 세설체의 장르 관습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한정록』의 나머지 장들도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러한 작업은 향후의 과제로 남기고 여기서는 『한정록』의 편차가 구성된 방식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종전의 세설체 저작에서는 포함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양생술과 농법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나 부록 병기 형태의 집성 방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논해보겠다. 이 작업을 통해 『한정록』에 수록된 일건 잡다한 내용이 어떻게 하나의 일관된 전체로 묶일 수 있었으며, 『한정록』의 속성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온당할지에 대한 단서를 탐색해 보겠다.

우선 『한정록』이 세설체 저작이라 할 때, 그렇다면 ‘세설체’란 것은 한문 서목의 전통적인 분류 방식, 가령 경사자집(經史子集)의 네 가지 중에서 어디에 속한다고 할 것인가? 3절에서 본 것처럼 이 책이 실존 인물들의 일화를 시대순으로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때 『한정록』을 사서(史書)로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후지모토 유키오의 시각이다.<sup>52)</sup> 또한 이러한 시각은 명대의 세설체 저작을 만들었던 작가들의 시각이기도 했다.<sup>53)</sup> 설령 명대의 세설체 저작은 그것의 수준이 어떠한 그 편찬자들의 의도 차원에서는 사적(私的)인 역사 서술 기획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52)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 史部, 東國大學校出版部, 2018, 584~585면.

53) Qian, Ibid., pp.200~202. Qian은 여기서 陸師道(1510~1573)가 허량준의 『하씨어림』 서문에서 세설을 ‘훌륭한 역사 서술’이라 상찬한 대목 등을 열거하면서, 명대 세설체 저작들이 자신의 저작을 정사(正史)에 못 미치는 열등한 역사 서술, 내지 그저 사적(私的)인 작업으로 폄하하려는 시각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에 주목하고 있다.

허균의 『한정록』의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한정록』의 말미에는 일종의 건강 유지법을 논한 「섭생(攝生)」, 농법을 다룬 「치농(治農)」 편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 책을 역사서로 취급하는 시각을 선뜻 수용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중국 학계에서 닝지아위(寧稼雨)를 비롯해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러하듯, 루윈의 시각을 답습하여 세설체 저작을 이른바 ‘소설’의 원류로 취급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sup>54)</sup> 반면 서구의 중국학 연구자들의 경우 『세설신어』나 세설체 저작 일반을 결코 소설(Novel)과 비슷한 어떤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sup>55)</sup> 하지만 여기서는 이들 간의 의견 차이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만을 언급해 두기로 한다. 세설체를 소설의 일종으로 취급하는 것이 온당한가 하는 문제는 그 자체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지만, 세설체를 소설로 보든 그렇지 않든 허균의 『한정록』은 앞서 언급했듯 명대의 세설체 저작에는 보이지 않는 이질적인 화제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설체를 소설에 귀속시킬지 여부는 중요한 논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한정록』의 속성을 상위 범주의 어떤 것에 귀속시키는 작업에 있어서는, 비록 「은둔」이나 「고일」처럼, 인물들의 일화를 연대기순으로 수록한 장과 관련되는 적실성이 다소 희석되더라도, 『한정록』에 수록된 내용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느슨한 범주를 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한 조건에 부합하면서 『한정록』의 속성을 설명하는 데 가장 유리한 장르는 필기가 아닌가 한다. 서구 학계에서 중국 문헌 분류와 관련해 널리 인용되는 Endymion Wilkinson의 견해에 따르면, 필기는 근본적으로 독서 메모에서 시작되었고, 대개는 저자가 자신의 견해를 쓰기보다는 기성 서적의 내용을 발췌하여 집성하는 방식으로 엮였다고 일컬어진다. 그 결과 필기에서 다루는 주제는 극히 다양하여 그 속성이 본질상 유연한 특징을 지녔기에, 전통

54) 寧稼雨, 앞의 책; 楊義, 앞의 논문; 左江, 앞의 논문 참조.

55) 『세설신어』 자체의 속성에 대한 최근의 논의로 다음을 참조. Jack Chen W. *Anecdote, Network, Gossip, Performance : Essays on the Shishuo Xinyu*,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21, pp.10~20. 여기서는 『세설신어』가 역사적 재현을 지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 책이 보여주는 인물상 역시 개별 인물의 개성보다는 특정한 유형(type) 반복을 통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세설신어』를 ‘청담’으로 보는 입장 역시 청대의 조익(趙翼) 이후에 구성된 해석으로 평가한다. 그렇게 하여 Chen은 『세설신어』를 남북조 시기의 문화 엘리트들이 공유하는 담론적 형식을 서사적 방식으로 보여주는 복합적 텍스트로 본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적인 사부 분류법 중 사(史)·자(子)·집(集) 중 어느 한 범주에 배타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sup>56)</sup> 『한정록』을 필기에 귀속시키는 것은 『세설신어』의 제목에 ‘신어(新語)’라는 명칭이 들어 있고, 이 명칭이 전통적으로 필기와 동의어로 쓰였던 여러 책 제목 유형 중 하나에 속한다는 점<sup>57)</sup>에 의해 그 타당성이 강화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한정록』을 필기에 귀속시키는 것은 종전에 『한정록』을 유서(類書)에 귀속시켰던 견해와는 관점을 달리함을 뜻한다. Wilkinson은 유서를 백과사전적 문장 선집으로 규정하면서, 필기와는 종류를 달리하는 별도의 범주로 규정하였다.<sup>58)</sup> 그 정의 방식에서 볼 수 있듯, 유서는 근본적으로 지식을 재조합하여 일정한 목적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시하려는 실용적 문헌이며,<sup>59)</sup> 이는 『한정록』이 표방하는 주관적 관심사로서의 ‘한정’의 의미를 구성하고자 하는 지향과는 본질적으로 어긋난다. 앞서 거론한 심경호의 유서 연구에서도 유서를 두고 “辭典의 편찬 방식을 취하면서 事典의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한 시대의 지식 형성에 기초”가 된다고 규정한 것은 유서가 기본적으로 ‘객관적 지식’의 집성을 지향하는 장르로 이해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정록』은 이하에 예시하는 것과 같이, ‘한정’이라고 하는 주관적 지향의 표출과 의미망의 재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한정록』이 『세설신어』를 비롯해 이전의 문헌에 나오는 ‘문장’들을 모은 책이라는 점과 참고 자료로서의 목적이 아닌 그 자체로 향유될 것을 바란 자족적인 책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선행 연구에서도 『한정록』을 초집(抄集)으로 보자는 제안이 있기는 했다.<sup>60)</sup> 하지만 그 경우에도, 허균보다

56) Endymion Wilkinson, “53. Biji” *Chinese History: A New Manual*.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13, p.650.

57) Wilkinson, *Ibid.*, p.651.

58) Wilkinson, *Ibid.*, p.955.

59) 심경호, 「한국 類書의 종류와 발달」, 『민족문화연구』 4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86면.

60) 김영연, 「버클리대 소장 필사본 『한정록』의 특징과 가치」, 『동서인문학』 63, 계명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2, 119면. 여기서 착목한 선행 연구는 김수진, 「양명학 텍스트의 專有와 流布 - 정제두 抄集 양명학 문헌의 발굴과 검증」, 『양명학』 51, 한국양명학회, 2018, 204면의 내용이다. 김수진은 여기서 로제 샤틀리에의 『읽는다는 것의 역사』에 등장하는 ‘텍스트의 전유’ 개념을 인용하고 있다.

후대의 사례인 정제두의 양명학 문헌 초집 사례 연구를 지목하면서 ‘기존 텍스트에 의존하되, 기존 텍스트의 데이터를 선택하고 재배열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망을 형성’하는 텍스트의 전유라는 차원에 착목하는 데 그쳤다. 그런데 이처럼 독서 자체의 의미나, 또는 독서에 후행하여 내용 발췌 모음집을 편찬하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학문적 입장의 계보를 추적해 보면 거기에는 간단치 않은 문제가 걸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달리 생각하면, 『한정록』에서 행한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문헌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주제별로 재배치하는 방식은 저자 자신의 독창성이 미미하게만 개입된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저작일 수 있다. 그럼에도 문선집 편찬 과정에서 나타나듯, 기존 문헌 내용의 발췌와 재배열 작업을 두고 그 작업이 하나의 구조와 질서를 구현하고, 문학이라는 것의 질서를 창출한다는 식<sup>61)</sup>의 적극적 해석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독서 행위와 텍스트의 의미에 대한 논쟁적인 견해가 자리하고 있다. 즉 텍스트의 의미는 텍스트에 고정되어 있거나, 저자가 어떤 의미로 쓰고자 했다는 식의 저자의 의도가 배타적인 권위를 누릴 수 있는 고정된 ‘대상(entity)’이 아니라, 독자가 문장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경험되는 ‘사건(event)’이라는 것이다.<sup>62)</sup> 스탠리 피쉬가 1980년대에 제시한 이 개념은 여러 문학 연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되었지만,<sup>63)</sup> 정작 텍스트의 의미를 ‘발견되어야 할 존재가 아닌 경험되는 사건’으로 본다고 하는 인식론적 발상의 전환은 아직까지 조선 시대 문헌 연구에서는 충분히 숙고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쉬가 주장하는 것처럼 의미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해석 전략을 공유하는 공동체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라는 입장에 서면,<sup>64)</sup> 『한

61) Seth Lerer, “Medieval English Literature and the Idea of the Anthology,” *PMLA* : *Publications of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118(5). NEW YORK: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2003, p.1263.

62) Stanley Fish, *Is there a text in this class? : the authority of interpretive communitie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Chapter 1.

63) 일례로 다음 논문에서는 종전까지 조선 시대 한글 소설의 독자를 연구할 때 계층이나 젠더로 나누는 것보다 독자 집단이 어떠한 해석의 규율을 공유하고 있느냐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유용하다는 논지의 근거로 피쉬의 이론을 인용하고 있다. 마이클 김, 『서양인들이 본 조선후기와 일제초기 출판문화의 모습: 대중소설의 수용과 유통문제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19집, 열상고전학회, 2004, 178면.

64) Stanley Fish, op.cit., p.15.

정록』에 포함된 사뭇 이질적인 주제들의 공존이나, 서문과 범례에 나오는 다음 내용의 의미가 정합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정록 서문』: 요새 병으로 휴가를 얻어 두문불출하던 중 유의경과 하량준의 『서일전』, 여조겸의 『와유록』, 도목의 『옥호빙』을 읽었는데, 이 책들에 갖든 한 적하고 상쾌한 마음이 내 마음에 꼭 들었다. 마침내 네 분의 글을 합하고 내가 읽은 다른 글들 사이사이에 덧붙여 한 권의 책으로 엮은 뒤, 옛사람의 시와 부(賦)와 잡문에서 한가로운 삶에 대해 언급한 것을 가져와 후집(後集)을 만들었다. 도합 10편으로 만들고 『한정록』이라는 제목을 붙였으니, 이 책을 만든 것은 나 자신을 성찰하기 위함이다. (중략) 다음날 언젠가 숲 아래에서 속세와 인연을 끊고 세상을 버린 선비를 만나게 될 때 이 책을 꺼내 가지고 서로 토론(揚榷)한다면 내 타고난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저버리지는 않으리라.<sup>65)</sup> (강조는 인용자, 이하 동일)

『한정록 범례』: 내가 경술년(1610, 광해군2)에 병으로 세간사를 사절하고 문을 닫고 객을 만나지 않아 긴 낮 시간을 보낼 방법이 없었다. 그러던 중 마침 보마리를 들춰서 책 몇 권을 찾았으니, 바로 태사 주지번이 준 『서일전(棲逸傳)』·『옥호빙(玉壺氷)』·『와유록(臥遊錄)』 3종이었다. 이것을 반복하여 펴 보면서 곧바로 이 세 책을 4문(門)으로 분류하여 묶어서 ‘한정록’이라 이름하였다. 그 유문(類門)의 첫째가 ‘은일(隱逸)’, 둘째가 ‘한적(閒適)’, 셋째가 ‘퇴휴(退休)’, 넷째가 ‘청사(淸事)’였다. 내 손으로 직접 베껴 책상 위에 얹어 두고, 뜻이 같은 벗들과 그것을 함께 보았더니 다들 참 좋다고 했다. (중략) 그러던 중 갑인(1614)·을묘(1615) 양년(兩年)에 업무차 북경에 재차 가게 되어, 그때 집에 있는 돈으로 약 4천 권의 책을 구입했다. 그중 한정에 관계되는 부분에는 쪽지를 책 윗부분에 끼워두었다가 나중에 완성본을 만들 때 쓰려 했다. 그러나 형조 판서를 맡아 공무가 너무 많게 되어 감히 내용 고르는 작업에는 착수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금년 봄에 남의 고발을 당해 죄인의 몸이 되자 두렵고 놀란 정황에 깊은 시름을 떨쳐버릴 방도가 없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책들을 가져다가 끼

65) 『성소부부고』 권5, 『閒情錄序』, “近以疾移告杜門, 偶閱劉何棲逸傳, 呂伯恭臥遊錄, 都玄敬玉壺氷, 其寓情蕭散, 犁然有當於心. 遂合四家所筭, 間附以所觀記, 彙爲一書, 又取古人詩賦雜文詠及於閑逸者爲後集, 爲編凡十, 題曰閒情錄, 自以澄省焉. (중략) 異日林下, 若遺世絕俗之士, 出此編以相揚榷, 則庶不負初賦云.” 번역은 정길수, 『나는 나의 법을 따르겠다』, 돌베개, 2012, 209~212면을 참조하여 약간 수정하였다.

위농은 부첩을 보고 베껴서, 이것을 다시 16문(門)으로 나누고 권(卷)도 역시 16권으로 만들었다. 아, 이제 『한정록』이 거의 완결되었고, 나의 귀향하고 싶은 심사가 이 책을 통해 더욱 드러났다.<sup>66)</sup>

1618년 봄에 쓴 것으로 생각되는 『한정록』 범례는,<sup>67)</sup> 현재까지 알려진 총 28종의 이본 중 대부분의 이본에 수록되어 있다.<sup>68)</sup> 극히 일부의 이본만이 허균의 『한정록서』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위의 인용한 『범례』의 뒷부분에는 총 16권으로 이루어진 나머지 편들이 각각 어떤 취지에서 편찬되었는가를 서술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상 두 편의 내용으로부터 『한정록』은 허균의 독서 체험으로부터 시작하여, 세설체의 서술 문법을 차용하여 새로운 개념을 구성해 내고자 하는 작업의 총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한정’과 같이 당시로서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정립하겠다고 했을 때, ‘한정’이라는 말의 의미는 발견되어야 할 자명한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한정’이라는 개념에 대한 편찬자 자신의 정서적 감응(“내 마음에 꼭 들었다”)이 있고, 그런 다음 어떤 대목을 뽑고 어떤 대목을 배제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작업이 이어진다. 그런 다음 이 책의 내용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동료의 존재를 기대하고 있다. 이 점은 ‘한정’이라는 개념에 대한 의미 구성이 모종의 정답을 찾는 작업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해석 공동체를 구성하는 작업을 수반한다는 감각을 보여준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제15~16편에 해당하는 ‘섭생’과 ‘치농’ 편의 설정 근거를 제시한 다음 인용문을 검토해 보겠다.

66) 『한정록』 『범례』, “余在庚戌夏, 抱痾謝事杜門爲客, 無以消長日. 巾衍中適披得數帙, 乃朱蘭鳴太史所贈栖逸傳, 玉壺水, 臥遊錄三種, 反覆披覽, 仍取三書, 爲四門類彙, 名曰閒情錄. 一曰隱逸, 二曰閒寂, 三曰退休, 四曰清事. 手自繕寫, 置案頭, 同志友見之, 咸以爲佳. (중략) 甲寅乙卯兩年, 因事再赴帝都, 斥家貨購得書籍幾四千餘卷, 就其中事涉閒情者, 以浮帖, 帖其提頭處, 以需殺青, 逮判刑部, 公務浩穰, 未敢下手稗選. 今年春羅謗, 席藁戰悸之中, 無以破窮愁, 遂取諸書, 考浮帖寫出, 更分爲十六門, 而爲卷亦十六. 噫! 閒情錄到此, 庶爲完備, 而僕之歸思, 益著於是矣.”

67) 허균은 1616년부터 1617년 10월까지 형조 판서로 있었다. (『광해군일기』 8년 5월 11일 경진 9번째 기사, 『광해군일기』 9년 10월 11일 임인 3번째 기사 참조)

68) 김영연, 『버클리대 소장 필사본 『한정록』의 특징과 가치』, 『동서인문학』 63,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2, 125면.

신선이 되기를 추구하는 일은 심원해서 알기 어렵다. 산택에 은거하는 여원 유자(儒子) 중에는 복식과 섭양을 통해 장수를 누린 경우가 있었으므로, 섭생을 제15편으로 삼는다.

사(士)·농(農)·공(工)·상(商) 네 가지 민(民)의 생업 중에 농업이 근본이요, 한거자가 해야 할 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제16편 ‘치농(治農)’으로 한다.<sup>69)</sup>

사실 「섭생」처럼 장수를 추구하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나, 장수를 실현한 최선의 형태로서 신선의 여러 모습을 나열한 것은 『준생팔전(遵生八牋)』과 같은 책에서도 「영비단약전(靈秘丹藥箋)」 같은 장을 통해 발견된다. 신희의 인용구 모음인 「야언(野言)」 중에서도 하편은 「섭생」 편과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 허균의 『한정록』이 특이한 점은 신선 되기를 추구하는 노력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분명히 하고, 그럼에도 장수를 추구하는 방식으로서 복식과 섭양에 기울이는 노력의 의의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한정’이라는 개념의 하위 범주로 포섭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정록』을 독특한 문장 선집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은 「치농」 편 의 삽입이다. 허균은 농사를 한거자가 해야 할 일로 규정함으로써 농법의 구체적 전략을 ‘한정’의 의미망 안으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한정록』은 일견 문장 선집이기를 그치고 농서의 영역에 걸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가령 「치농」 편에서 반복되듯이, 어떤 작물은 어느 달에 심고 잡초를 제거해야 한다는 식의 ‘실용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대목은 재야의 ‘한거자’로 살아가는 가상의 독자에게 있어서는, 정통의 문장 선집을 보는 독자가 수록된 유명 작품을 읽을 때 대하게 되는 정보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물론, 문장 작법의 연마와 같이 공적으로 소용되는 기술을 연마하고자 『당송팔대가문초』와 같은 문장 선집을 읽는 독자는 거기 수록된 단락 구성법이나, 문장 작법에 유념하여 읽고, 「치농」 편 의 독자는 그 문장들이 지시하는 지침을 실천하는 것이 관건이 되기 때문에 글공부를 위한 독서와 농사를 위한 독서의 독법은 상이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허균이 상정하는 한거자는 세설체 서적을 읽고 그것을

69) 『한정록』 「범례」, “求仙則玄遠不可知也。山澤之隴，以服食攝養，得延遐壽者有之，爲攝生第十五。四民之業，唯農爲本，而閑者之事業，故爲治農第十六。”

오락으로 향유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을 가진 독자이며, 당대 사회에서 그런 계층의 독자가 농사일을 노비 등에게 전가하지 않고 몸소 한다고 생각하면서 『치농』의 지침을 읽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즉 텍스트의 내용을 독자 자신의 실질적인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정보를 습득한다는 차원에서 읽었으리라는 점에서, 기성의 정통적인 문장 선집의 독자와 『한정록』의 독자는 공통점도 없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듯 여러 서적 속에서 눈에 띄는 내용을 대폭 발췌·인용하되 세설체의 편집 양식, 각 편의 제목을 두 글자로 부여하고, 그 두 글자 편명에 걸맞은 내용으로 편마다 발췌문을 삼입해 넣는 방식은 ‘한정’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재구성하겠다는 편찬자의 주관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편집 방식에 개재된 편찬자의 주관성은 『한정록』이 일견 기존 서적 내용의 발췌문처럼 보이는 내용 구성에도 불구하고, 『한정록』 편찬을 통해 저자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다음 질문으로 독자를 안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가령 송대 사대부 필기 중 장뢰(張耒)의 필기 『명도잡지(明道雜誌)』에 대한 한 연구에서는 장뢰가 필기류 저작을 집성한 것은, ‘의도적으로 비체계적이고 비정형적인 형식을 선택한 것이며, 이것은 사대부들 간의 담론에 참여하는 방식이자, 사대부들이 경험한 세계에 대한 이해와 토론의 장에서 발언하는 행위’였다고 평가한다. 즉, 비체계적인 양식을 통해 지식을 배치한다는 작업은 첫째로 정이(程頤)의 도학(道學)으로 대표되는 천인합일의 일관된 인식 체계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과 대립하는 것이며, 둘째로, 국가 권력을 통해 사회 전반에 일률적 체계를 부과하려는 데 대한 대응이라는 것이다.<sup>70)</sup> 이 견해에 따르면, 정이의 신유학에서 제시하는 세계관, 즉 하늘과 인간 또는 자연과 인간 사회에는 통일적 원리가 존재하므로, 사대부는 세계 속의 사물 낱낱을 탐구하느라 시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내적 수양을 통해서 세계를 바로잡는 것이 낫다는 입장에 맞서 그러한 통일성의 존재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하는 것이 필기라는 양식이 제기하는 의미인 것이다.<sup>71)</sup> 이러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필기라는 장르는 편찬자

70) Peter Bol, “A Literati Miscellany and Sung Intellectual History: The Case of Chang Lei’s *Ming-tao tsa-chih*.” *Journal of Song-Yuan Studies* 25, 1995, pp.146~148.

가 지향하는 주관성의 표출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단지 객관적 정보의 집성이거나 또 다른 목적을 위한 지식의 체계적 정리를 목표로 하는 유서와는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물론 『한정록』은 「치농」 편에 당시로서는 비교적 최신 지식에 속하는 강남 농법<sup>72)</sup>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있고, 14권 「청공(淸供)」 편이나, 15권 「섭생(攝生)」 편에서 보듯, 각종 기물의 사용법이나 건강 관리법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지식’의 집성물로서의 성격도 가짐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점은 17세기 초 조선 문인들이 중국 서적에 열렬한 관심을 가진 근본 원인이 단지 예술적 취향 충족이 아니라, 현실적 정보를 얻고자 하는 데 있었다는 지적과도 관련된다.<sup>73)</sup> 분명 『한정록』은 명대 가정·만력 연간 인쇄물의 폭증 속에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정보량에 직면한 조선 문인들이 기성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려는 고투의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로서의 성격도 있다고 생각된다. 서구 르네상스 이후 인쇄술의 출현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한 독서 유형의 하나로 ‘비망록’ 즉 기억해 둘 만한 문구를 모을 책이 출현했다는 점<sup>74)</sup>과 명대 가정·만력 연간 무렵 지식 사회의 동향은 유사한 면이 있다.<sup>75)</sup>

71) Peter Bol은 이 논의에서 장되는 이 시기 정이로 대표되는 신유학 진영에서 제기하는 통일성에 대한 가정을 전면 부정한 것은 아니며, 다만 인간이 그 통일성이나 전체성을 실현해 낼 가능성에 회의적이었다고 본다. 다만 필기는 그러한 전체의 일면을 특정한 사안 속에서 엿볼 수 있는 재능 있는 개인의 자리를 요청한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필기는 일정한 체계를 사회에 관철하려는 권위적 시도에 대항하는 장르이며, 실제 경험이 제공하는 다양성과 특수성을 부각함으로써 ‘통일성’이라는 관념을 해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Ibid., p.148, 150.

72) 김용섭, 앞의 논문, 25면.

73) 장유승, 「16세기 말 17세기 초 명대 서적의 수입 배경」, 『동아시아의 문헌 교류』, 소명출판, 2014, 110면.

74) 로제 샤프티에·굴리엘모 카발로 편, 이종삼 역, 『읽는다는 것의 역사』,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6, 52~53면. 이러한 비망록은 여러 표제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고전적 기억술을 대신한 독서의 기초를 이루는 동시에, 새로운 텍스트를 만드는 자원으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일컬어진다. 로제 샤프티에의 경우, 이러한 비망록 방식의 독서, 즉 자신이 읽은 것을 잘 기억하기 위해 베끼거나 수집해서 소중하게 보관하는 방식의 독서를 거부하고, 읽은 것을 그저 수집하기보다는 비체계적인 방식으로 텍스트를 읽고 책 말미에 자기 의견을 적어놓은 몽테뉴 같은 독자에 의해 새로운 전기가 열린 것으로 서술한다.

75) 허균만큼 방대한 분량은 아니지만, 이수광의 『채신잡록(採薪雜錄)』이나 신희의 『야언(野言)』에서도 읽은 책에서 문장 단위로 발췌하여 인용을 모아 놓은 유사한 형식의 글들이 나타나는 것은, 허균식 독서법이 당대 판로 문인들 사이에서 일정 부분 공유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정록』은 동시대 여타 관료 문인들의 유사한 작업에서 보이는 소극성과는 달리, 편찬자의 주관적 지향을 그 편차 방식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드러낸 저작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야 인사의 한가로운 삶을 세설체라는 전통적인 필기 양식을 통해서 포괄하는 동시에, 우아한 삶을 구가하는 데 소용되는 각종 새로운 기물의 사용법이나 양생술, 최신 농법 등 실용적 영역까지를 포괄함으로써 ‘한정’의 의미를 재규정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전까지는 ‘한(閒)’의 의미가 공적인 의무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뜻하여 겸사(謙辭)로 쓰이던 정도에 그치지 않고, 사적인 삶의 영역이 훨씬 풍요롭고 다채로운 재료로 채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그런 점에서 허균의 『한정록』은 명대 강남 사대부들에게서 한 차례 혁신된 세설체 필기 양식의 가능성을 한층 더 확장한 의미가 있다.

## V. 결론

허균 문학에서 『세설신어』가 중요하다는 점은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이 “그가 취해 활용한 것은 『세설』 한 권이다. 그래서 그 맑고 충민한 면을 따르기 어려운 것”<sup>76)</sup>이라 지적하였던 때부터 이미 알려져 있었다. 『한정록』은 그 체제와 구성 면에서 세설체의 형식을 따르고 있을뿐더러, 편자 자신이 『한정록』 편찬의 핵심 문헌으로 지목한 3종의 서적 모두 『세설신어』에 상당 부분 기초하고 있는 문헌이다. 그런데도 여태까지 『한정록』에 관한 논의에서는 『세설신어』와의 구조적 상동성이나 변용 양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또한 『한정록』과 『세설신어』 간의 관계보다는 『소창청기』라는 저작과의 관련에 주목하는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본고는 그와 같은 종전의 시각과는 달리, 『한정록』의 이해에 있어서 『세설신어』와의 비교가 중요하다는 점을 환기하고자 했다. 『세설신어』야말로

76) 이덕무, 『청장관전서』 권51, 『耳目口心書』, “[許端甫覆瓿集, 簡牘娟奇可喜, 東國罕有也. 學明文者,]而其取用者, 一部世說也. 故其清警難及.” 산문 창작 뿐 아니라, 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세설신어보』의 어휘를 다수 차용한 사실이 거듭 지적되었다. 강성중, 『『國朝詩刪』의 평어 연구』, 『韓國漢詩研究』 24, 한국한서학회, 2016, 110~114면; 임미정, 『『국조시산』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92면.

특정한 주제 아래 관련된 일화를 묶어서 해당 주제를 구현하도록 하는 생각의 방식을 제공한 근본 문헌이다. 『세설신어』 이래 꾸준히 지속된 세설체 문헌들은 『세설신어』가 제공한 그와 같은 개념화 방식이 장기간 생명력을 가지고 문인 공동체 속에서 살아남았음을 입증하고 있다. 허균의 『한정록』 역시 그와 같은 세설체 문학의 전통 속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한정록』 연구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헌은 『세설신어』이다. 『소창청기』는 일부 세설체 저작들에도 실려 있는 일화를 공유하고 있는 문헌이기는 하지만, 세설체 저작의 명대적 변주에 지나지 않는다. 세설체 저작의 부흥을 이끈 명대의 대표적인 문인들, 즉 하량준과 왕세정 같은 문인들이 종전의 세설체 저작을 증보하는 과정에서 성리학적 완물상지의 테제를 거부하고 물질적 풍요를 구가하는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갔다는 점을 알아야, 『한정록』의 고유한 특징이 명대의 세설체를 일부 수용하고 일부 거부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정록』이 은둔자에 관한 인물 일화를 연대기순으로 배열함으로써 ‘은사의 역사’라는 내러티브를 생성한 점에서는, 세설체의 전통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반면, 명대 세설체에 관여했던 문인들이 표방했던 반성리학이나, 물질 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했다. 아울러 『한정록』을 명대 중기 이후 양적으로 급증한 정보를 흡수하기 위한 독서 기법으로 고안된, 필기 계통의 문장 선집으로 규정하고자 했다.

본고에서는 『한정록』의 서술 체제와 반복되는 서술 패턴, 사상적 지향을 유념하여 봄으로써, 종전까지 이루어진 『한정록』 연구가 서지학적 방면에만 편중되었던 점을 반성하고자 했다. 추후의 『한정록』 연구는 서지학적 탐구에 못지않게 『한정록』 자체가 보여주는 17세기 특유의 사고방식, 문학적 잠재력, 역사를 인식하는 방식의 고유성을 탐색하는 방식으로도 진전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고가 그 과정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 吳從先, 『小窗清紀』(『四庫全書存目叢書』(子部 253책)).  
王泰亨, 『題世說新語補後』, 『世說新語補』(張文柱校刻本, 1585년, 20권본), 대만국가  
도서관 소장본(索書號: 310.21 08411)  
何良俊, 『何氏語林』, 上海古籍出版社, 1983.  
허균, 『한정록』,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_\_\_\_\_, 『한정록』,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영인본.  
허경진, 『허균전집 3: 한정록』, 보고사, 2022.

### 2. 단행본

- 김석하, 『韓國文學의 樂園思想研究』, 日新社, 1973, 152~170면.  
로제 샤흐티에·굴리엘모 카발로 편, 이종삼 역, 『읽는다는 것의 역사』, 한국출판마케  
팅연구소, 2006.  
루원 저, 루원전집번역위원회(조관희) 역, 『루원전집 11 중국소설사략』, 그린비, 2015.  
이노우에 스스무, 『중국 출판문화사』, 이동철 외 역, 민음사, 2012.  
한영우, 『허균 평전』, 민속원, 2022.  
허경진, 『허균 평전』, 들베개, 2022.  
허균 저, 정길수 편역, 『나는 나의 법을 따르겠다』, 들베개, 2012.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 史部, 東國大學校出版部, 2018.  
寧稼雨, 『中國志人小說史』, 遼寧人民出版社, 1991.  
Chen, Jack W. *Anecdote, Network, Gossip, Performance : Essays on the  
Shishuo Xinyu*,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21.  
Fish, Stanley, *Is There a Text in This Class? : The Authority of Interpretive  
Communitie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Goodrich, L. Carrington and Fang Chao-ying, eds. *Dictionary of Ming Biography  
1368-1644*. 2 vols.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6.  
Qian, Nanxiu, *Spirit and Self in Medieval China: The Shih-shuo hsin-yu and  
Its Legacy*,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1.  
Wilkinson, Endymion. *Chinese History : A New Manual*,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13.

## 3. 논문

- 강석중, 『『國朝詩刪』의 평어 연구』, 『韓國漢詩研究』 24, 한국한시학회, 2016, 87~122면.
- 김수진, 『양명학 텍스트의 專有와 流布 - 정제두 抄集 양명학 문헌의 발굴과 검증』, 『양명학』 51, 한국양명학회, 2018, 193~232면.
- 김영연, 『버클리대 소장 필사본 『한정록』의 특징과 가치』, 『동서인문학』 63,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2, 103~144면.
- \_\_\_\_\_, 『허균(許筠) 산문의 한정(閒情)과 선취(仙趣)』,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23.
- \_\_\_\_\_, 『許筠 산문과 명대 문학의 관련성 재고』, 『한국한문학회연구』 90, 한국한문학회, 2024, 87~124면.
- \_\_\_\_\_, 『논변류 산문을 통해 본 허균의 정치 담론: 「學論」, 「政論」, 「遺才論」, 「豪民論」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회연구』 70, 동양한문학회, 2025, 199~240면.
- 김용섭, 『閑情錄의 農業論』, 『東方學志』 52,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 1986, 19~39면.
- 김은슬, 『『閒情錄』의 引用文獻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9.
- \_\_\_\_\_, 『『閒情錄』 現傳本에 나타난 문헌의 인용방식과 그 체계』, 『書誌學報』 33, 한국서지학회, 2009, 55~88면.
- 김은정, 『申欽의 淸言 선록집 『野言』 연구』, 『국문학연구』 22, 국문학회, 2010, 45~74면.
- \_\_\_\_\_, 『『小窗淸紀』 異本과 17세기 초반 朝鮮에서의 수용 양상』, 『韓國漢文學研究』 47, 한국한문학회, 2011, 495~525면.
- 김장환, 『『世說新語』 續書 研究: 『世說新語補』』, 『中國語文學論輯』 16, 중국어문학연구회, 2001, 77~96면.
- 김정숙, 『명대중엽 세설체 형성』, 『中國語文學誌』 53, 중국어문학회, 2015, 193~219면.
- \_\_\_\_\_, 『명대 강남 吳中의 博雅風 문화와 조선 문단의 교섭』, 『中國散文研究集刊』 16, 한국중국산문학회, 2024, 53~93면.
- 노경희, 『현종실록자본 『세설신어보』 간행과 流傳의 문화사적 의미』, 『한국한문학회연구』 52집, 한국한문학회, 2013, 498~532면.
- \_\_\_\_\_, 『『세설신어보』의 조선과 에도 문단의 출판과 향유층 비교』, 『한국문화』 72,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5, 71~97면.
- 마이클 김, 『서양인들이 본 조선후기와 일제초기 출판문화의 모습: 대종소설의 수용과 유통문제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19집, 열상고전학회, 2004, 173~198면.
- 박상영, 『『인제지』의 조선후기 의사학적 위상과 의의-미기 사카에의 ‘재인용[孫引]’ 지적과 ‘학술가치’ 평가에 대한 재검토』, 『韓國實學研究』 25, 한국실학학회, 2013, 531~575면.

- 박영호, 『《閒情錄》 연구』, 『韓國道敎와 道家思想』 5, 한국도교사상연구회, 아세아문화사, 1991, 237~255면.
- 부유섭, 『허균이 뽑은 중국 시(1) - 『당절선산(唐絶選刪)』』, 『문헌과해석』 27, 문헌과해석사, 2004, 243~268면.
- \_\_\_\_\_, 『신흙과 명대 문학 - 명대 복고시학과 저술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6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4, 123~151면.
- 송신가, 『허균 『閒情錄』의 연구 -明代 『小窓淸記』 청언소품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심경호, 『한국 類書의 종류와 발달』, 『민족문화연구』 4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85~136면.
- 유희준 · 민관동, 『《皇明世說新語》의 국내 출판과 수용 연구』, 『중국소설논총』 40, 한국중국소설학회, 2013, 1~29면.
- 임미정, 『『국조시산』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_\_\_\_\_,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이본(異本) 연구(研究)』, 『語文論集』 82, 중앙어문학회, 2020, 215~254면.
- 장유승, 『16세기 말 17세기 초 명대 서적의 수입 배경』, 『동아시아의 문헌 교류』, 소명출판, 2014, 69~112면.
- 한영규, 『‘한적(閑適)’의 선함과 『한정록(閒情錄)』』, 『문헌과해석』 19호, 문헌과해석사, 2002, 165~176면.
- 楊義, 『漢魏六朝『世說體』小說의 流變』, 『中國古典小說史論』, 人民出版社, 1998.
- 左江, 『許筠《閑情錄》與“世說體”小說』, 『南京大學學報(哲學·人文科學·社會科學版)』 47(3), 南京大學, 2010, 104~110면.
- Bol, Peter K. "A Literati Miscellany and Sung Intellectual History: The Case of Chang Lei's Ming-tao tsa-chih." *Journal of Song-Yuan Studies* 25, 1995, pp.121~151.
- Chen, Jack W., "Knowing Men Being Known: Gossip and Social Networks in the *Shishuo Xinyu*" in *Idle Talk: Gossip and Anecdote in Traditional Chin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4, pp.55~70.
- Lerer, Seth, "Medieval English Literature and the Idea of the Anthology," *PMLA* : *Publications of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118 (5). NEW YORK: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2003, pp.1251~1267.

4. 기타 전자자료

전자판 사고전서

조선왕조실록 DB

Internet Archive (<https://archive.org/>)

## Rethinking the Literary Identity of *Hanjŏngnok*: The Shishuo-Style as a Mode of P'ilgi Writing

Kim, Youngyeon

This study problematizes the scholarly reluctance to define the generic attributes of *Hanjŏngnok* and argues that the work should be situated within the tradition of sesŏlch'e (anecdotal style prose, Ch. shishuotǐ 世說體, lit. "Shishuo style") that began with *Shishuo xinyu* (世說新語). Among the three major sources that form the basis of *Hanjŏngnok*, the most crucial is Shishuo xinyu itself. The paper contends that citing *Sodŏng chŏnggi* (Ch. Xiao chuàng qīngjì 小窓清紀) as the primary source on the grounds of its higher citation frequency is misguided, as *Sodŏng chŏnggi* is itself a Ming-dynasty sesŏlch'e text and a variation on *Shishuo xinyu*. *Hanjŏngnok* emerges as a derivative branch of this mainstream anecdotal tradition and may be understood as part of the sesŏlch'e revival led by literati in Jiangnan during the Ming, such as He Liangjun (何良俊) and Wang Shizhen (王世貞). However, *Hanjŏngnok* differs from these figures in its lack of anti-Neo-Confucian tendencies and its more reserved stance on material culture. The paper also draws attention to the work's inclusion of practical agricultural knowledge—such as the section on farming techniques ("Chinong")—presented on par with literary excerpts. This feature suggests that *Hanjŏngnok* should be read as a product of reading strategies designed for efficient information absorption, and as a continuation of the p'ilgi (筆記, Ch. bǐjì) tradition to which Shishuo xinyu also belongs.

Keywords: *Hanjŏngnok*, Shishuo-style, Hŏ Kyun, *Sodŏng chŏnggi*, Wang Shizhen, P'ilgi

접수일자: 2025. 3. 30.  
 심사기간: 2025. 4. 1. ~ 2025. 5. 10.  
 게재결정: 2025. 5. 10.